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동향지수 - 전망지수와 평가지수

최현자(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주소현(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조혜진(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대우연구조교수)

김민경(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전임강사)

김정현(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대우연구조교수)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사회 및 금융시장 전반에서 은퇴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은퇴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은퇴동향지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은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은퇴준비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비은퇴자 대상의 “은퇴전망지수”와 은퇴자 대상의 “은퇴평가지수”를 산정하여 다가올 은퇴생활에 대한 전망과 실제 은퇴생활에 대한 평가를 두루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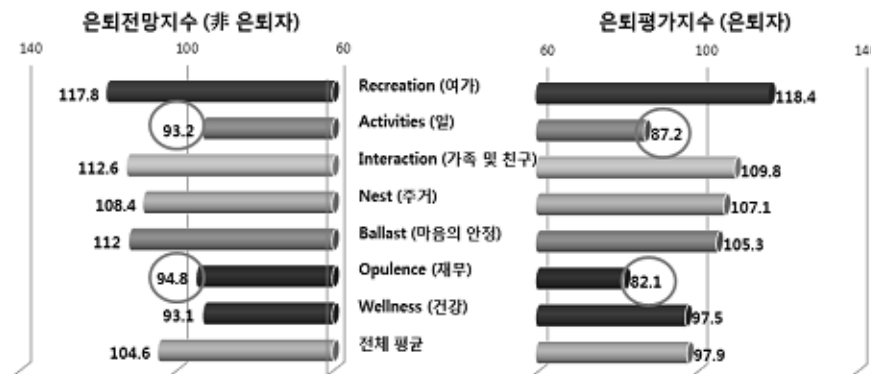
선행연구 고찰을 근거로 은퇴생활의 하위영역을 세분화하여 ‘여가’, ‘일’, ‘가족과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의 7가지 세부 하위영역에서의 은퇴동향지수를 제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비은퇴자 1776명, 은퇴자 21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가계의 종합 은퇴전망지수는 104.6점(0점~200점 분포, 100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을 의미)으로 나타나 은퇴생활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비은퇴자보다 긍정적으로 하는 은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7가지 하위영역별 은퇴전망지수는 93.1~117.8점의 범위를 가지며, [여가 > 가족 및 친구 > 마음의 안정 > 주거 > 재무 > 일 >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 일, 건강 영역의 은퇴전망지수는 100 이하의 점수를 보여 이들 영역에 대한 은퇴전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의 종합 은퇴평가지수는 97.9점(분포 및 해석은 전망지수와 동일)으로, 은퇴 전 생활에 비해 은퇴 후 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은퇴자가 많아졌다고 평가한 은퇴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하위영역별 은퇴평가지수는 82.1~118.4점의 범위를 가졌으며 영역별 순서는 [여가 > 가족 및 친구 > 주거 > 마음의 안정 > 건강 > 일 > 재무]의 순이었다. 은퇴자들은 여가, 가족 및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측면에서 은퇴 후 생활이 은퇴 이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평가한 반면, 일과 재무 측면은 현저히 나빠졌다고 평가하였다. 일 영역과 재무 영역의 은퇴평가지수가 가장 저조한 것은 은퇴자들의 중요도 평가 상위 3개 영역(일, 재무, 건강; 별도 분석) 중 두 개의 영역이 은퇴 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일과 재무 분야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은퇴전망지수와 은퇴평가지수를 비교하면(<그림1>), 일, 가족 및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등 5개 영역에서 비은퇴자의 전망인 은퇴전망지수에 비해 실제 은퇴자들의 생활 평가인 은퇴평가지수가 더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과 재무 영역에 대해서는 은퇴평가지수가 은퇴전망지수에 비해 그 값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

서 은퇴 전에 은퇴기의 일과 사회활동을 준비하고, 재무상황을 파악하여 은퇴 후 소비지출에 대비하는 등 일과 재무 영역에서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은퇴전망지수와 은퇴평가지수

본 연구는 주거 영역을 비롯한 생활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은퇴지수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이 주안점을 두었던 은퇴준비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은퇴생활에 대한 비은퇴자들의 전망과 은퇴자들의 평가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은퇴지수 관련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후속으로 척도의 지속적인 정교화, 은퇴지수와 은퇴생활의 직접적 관련성을 밝히는 추적 연구, 은퇴전망과 은퇴준비의 관계를 밝히는 학술연구 등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Barrett, G. F. and Kecmanovic, M. (2011). Subjective well-being in retirement: Evidence from HILDA.

Felce, David and Perry, Jonathan (1995). Quality of Life: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1), 51-74.

Frey, B. and Stutzer, A.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agerty, Michael R, Cummins, Robert A, Ferriss, Abbott L, Land, Kenneth, Michalos, Alex C, Peterson, Mark, Sharpe, Andrew, Sirgy, M Joseph, and Vogel, Joachim (2001). Quality of Life Index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1), 1-96.

The WHOQOL Group (199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1(10), 1403-1409.